

## 포르치온쿠라 (포르치온코라) 대사(大赦) (8 월 2 일)

### (아시시의 용서)

1. 이 대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2. 이것은 교회가 인준한 첫번째 전대사(全大赦)입니다.
3. 이 대사를 통해 죄 때문에 받게 될 잠벌 (잠시 당하는 벌)을 면제 받게 되고 거룩한 세례를 받았을 때와 같이 정화됩니다.
4. 8 월 2 일 가톨릭 성당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다음의 조건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면 이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 고해 성사를 봄 (일주일 전후로)
  - b. 당일 영성체를 모심
  - c. 당일 교구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교황 성하의 지향을 위해 주님의 기도 6 번, 성모송 6 번, 영광송 6 번, 사도신경 1 번을 바침
5. 한 대의 전대사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전대사들은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는 천국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 자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www.holylove.org](http://www.holylove.or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 년 8 월 2 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단순하며 겸손하십시오. 오늘은 포르치온쿨라의 (전)대사의 날이기 때문에 연옥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연옥은 영혼마다 다릅니다. 영혼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하느님을 섬기려 하는 성향에 따라 그의 연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임종의 순간이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는 연옥의 불로 매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반면에 나약해서 죄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는 고통을 덜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보다 자기 자신의 의견에 훨씬 더 애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통을 더욱 극심히 겪습니다.”

“오늘 이 대사로 새로워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눈에 무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항상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연옥을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